

(신학교육에 있어서 역사의 중요성)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마태복음 22:21)

김동일목사(생명찬교회)

들어가며

과거로의 여행, 인문학, 정신없이 달려옴, 좀 느리게
미래학자-철학, 역사기반-지금은 기술, 과학철학 윤리학

본론

1. 1차-4차 산업혁명

- 1차 산업혁명 18세기 중반, 석탄/증기기관
- 2차 산업혁명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철강/내연기관/전기/자동차/석유
대량생산과 자동화
- 3차 산업혁명 1970년 이후, 컴퓨터/인터넷, 정보기술(IT)
- 4차 산업혁명 융합, 인공지능/나노기술/3D복사기/사물인터넷

2. 산업혁명과 패러다임 쉬프트

2-1)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마스 사무엘 쿤(Thomas Kuhn, 1922~1996)이 1962년에 쓴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

이 책에서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토마스 쿤에 의하면 과학은 점진적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변화에 의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여기서 패러다임이란 한국말로 하면 '틀'이라 할 수 있는데-과학들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 기법을 총칭하는데 다분히 상대주의적 개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많은 패러다임들 중 어느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있다가 그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해 이를 주도하게 되고 그것이 과학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과학혁명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

천동설이 지동설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남

2-2) 세계관으로서의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

이처럼 과학용어로 시작된 패러다임 쉬프트는 그 이후 철학, 심리학, 언어학, 사회학 등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해서 오늘날 일상생활에 깊이 연관.

흔히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

오늘날 패러다임의 사전적 정의는 과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

2-3)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계문명의 발전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 지향점 등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따라서 오늘 우리 세미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와 미래를 논의하는데 필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인문학적 접근,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강의의 제목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라고 붙인 것-다 신앙으로 하자 하면 더 이상 강의와 토론이 필요없다.

3. 제 1 차 산업혁명기의 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대응

(제 1 차 산업혁명과 제 2 차 산업혁명기의 사회의 변화와 대응은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변화의 속도가 함께 다뤄도 된다.

특히 제 1 차 산업혁명은 영국에 의해서, 제 2 차 산업혁명은 독일과 미국 주도

인클로저(enclosure) 운동;

개방경지나 공유지, 황무지를 산울타리, 돌담으로 둘러놓고 사유지임을 명시

1 차: 15 세기 말-17 세기 중반, 양모값의 급등으로 양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경작지나 공유지에 울타리를 칩,

중산적 토지소유자층인 젠트리(gentry)계급의 성장, 그러나 농민들은 농토를 잃고 도시로 내쫓김

토마스 모어 “전에는 사람이 양을 먹었지만 지금은 양이 사람을 먹는다.

2 차: 18 세기 후반-19 세기 전반, 곡물가격 상승으로 자본가가 소농민의 토지를 흡수하여 대농장 경영,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농민들이 도시의 임금노동자가 됨,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제공

3-1) 제 1 차, 2 차 산업혁명의 그림자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것이 결코 절대적 '선'은 아니다.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생산력의 비약적인 증대뿐 아니라 그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제품을 그것도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교통기관의 발달로 이를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시키게 되었다.

이런 물질 면에서의 발전은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문화면에서 광범위하고 복잡한 변화를 야기시키게 되었다-세계관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1,2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제시하였다.

공장제도의 출현과 더불어 자본가 계급과 임금노동자 계급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특별히 이 시기 자본가와 그 밑에서 법의 보호없이 착취당하는 노동자란 두 계층

산업혁명기 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시간 강요, 부녀자와 미성년자(특히 어린아이들을 구빈원이라 불린 고아원에서 감언이설로 유혹해 착취)의 착취,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공장환경, 주기적 불경기로 인한 대량실업

이들은 도시 빈민굴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이런 환경에서 범죄, 위생 등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콜레라 발병을 높음

3-2) 교회의 대응-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

구세군,

1865년 7월 2일 런던에서 감리교목사였던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 1829-1912)와 그의 부인 캐서린 부스(Catherine Booth) '그리스도 전도회(Christian Mission)'라는 명칭으로 사역-런던의 동부 지역 빈민가에서 사역- 전도와 교육 뿐 아니라 가난구제, 자선, 사회사업을 통해 전인적 구원을 목표로-이것이 1878년 구세군으로 개칭해 오늘에 이름

조지 물러(1805-1898)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 5개의 고아원에서 10,024명의 고아를 돌봄

찰스 스펀전(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

1854년 20세의 스펀전이 런던 남부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New Park Street Church)에 부임했을 때 교인의 수는 232명, 22세에 이미 가장 인기있는 설교가, 1861년 메트로폴리탄 테버너클(Metropolitan Tabernacle)건축, 매주 만명이상모임

고아원, 양로원, 빈민학교 운영

3-3) 19세기의 대응

공상적 사회주의(생 시몽, 푸리에, 오웬)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헨리 죠지(Henry George, 1839-1897)

4. 제 2 차 산업혁명기의 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대응

전기

(1 차-2 차 산업혁명기를 보통 산업혁명이라 부름)

5. 제 3 차 산업혁명기의 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대응

5-1) 3 차 산업혁명과 패러다임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

5-2) 교회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메가처치(Mega Church)의 출현, 교회를 잠식한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의 교회

6. 제 4 차 산업혁명기에 대한 전망과 교회의 과제

6-1. 예상되는 사회의 변화

700 만개 군의 직업이 로봇으로 대체, 인간의 주 생활이 노동에서 여가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융합', 변호사직

6-2. 제 4 차 산업혁명기의 교회는 여전히 주도적일 수 있는가

Post Christendom:

다수에서 소수로(From majority to minority)

중심부에서 주변부로(From the centre to margins)

From settlers to sojourners

From privilege to plurality

(결론)

6-3. 16 세기 러시아 정교회의 소유파와 무소유파 논쟁

16 세기 전반에 걸쳐 러시아 정교 안에서 일어난 격렬한 종교논쟁

소유파: 이오시프 볼로쯔끼(Iosif Volotskii), 이단에 대한 강경책,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 국가와 교회는 동일한 권력의 두 축으로 부가 국가를 강력하게 하는 것 만큼 교회도 강력하게 할 것

무소유파: 닐 소르스끼(Nil' Sorskii), 이단에 대한 유화책,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청빈, 교회재산은 성직자들을 분심시키고 영성 수련을 방해하는 지상의 유혹

무소유파는 주로 스킨(skit)라 불리는 비좁은 오두막에 기거하며 형제애와 신성한 노동의 삶을 영위

두 차례의 종교회의 끝에 소유파 승리, 소유파가 제도권 교회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 이후 교회는 이후 급속도로 국가와 밀착 특히 잔혹한 폭정으로 악명 높은 이반 4 세(이반 뇌제, 1547 년 차르로 등극)와 결탁해 가장 반인륜적 행위들이 가장 거룩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짐, 모스크바가 거대한 수도원으로 변모-러시아 역사가 빌링턴은 전 국토의 '수도원화'로 이름을 붙임-하지만 이는 온갖 폭정과 만행을 가려 주는 무시무시한 덮개

이후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의 하나가 됨

6-4. 교회, 변할 수 없는 것과 변해야 할 것

결론: 느림, 빠름으로 승부할 수 없다.

1) 주류의식을 버리라

가능하지 않음, 그렇게 해서도 안됨

2) 케노시스(Kenosis)'를 회복하라. (빌립보 2:6-11)

'케노시스'란 빌립보서 2 장 7 절의 '당신의 것을 다 내놓고(heauton ekenosen, 헤아우톤 에케노센)'에서 유래.

그리스도의 자기비움, 그 비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냄

비움으로 가득차고, 낮춤으로 올려지고, 죽음으로써 영원히 살게됨

4강